

강민 전북대 교수, 농식품부장관 표창

전북대학교 강민 교수(조류질병연구소)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5일 전북대에 따르면 강 교수는 가금질병 예방백신 및 신속진단법 개발과 현장보급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최근 인체감염 사례 증가로 팬데믹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및 변이가 빠른 코로나바이러스에 유효한 3세대 유전자 백신 기술 개발로 향후 국내의 동물감염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성과는 '2024년도 농식품 R&D 우수성과 20선'에 선정된 바 있다.

강 교수는 "이번 수상은 그동안 축적된 조류질병연구소의 R&D 역량을 바탕으로 추진해 온 연구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술소리 등, 남원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기금 기탁

남원의 자랑 명주회사인 (유)술소리(대표 양인모)가 춘향 장학재단에 장학기금 5백만원을 기탁하고, 남원시 한우협회(대표 신춘호)에서도 1백만원을 기탁했다.

(유)술소리는 남원 노암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농민 중심, 전통 중심, 미래창조 경영을 바탕으로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남원시 대표 명주회사이다.

남원시 한우협회는 지역 인재의 미래를 위해 춘향장학재단에 꾸준히 기탁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5년 동안 총 9백만원을 기탁했다.

신춘호 자부장은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렇게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탁의 소감을 전했으며, (유)술소리 양인모 대표이사는 "(유)술소리가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 사랑받고 성장하기까지 남원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이 컸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읍, 경은모터스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운봉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이은주) 경은모터스(대표 노경남)에 착한가게 10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 나눔 캠페인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매월 3만원 이상 일정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모금된 기부금은 운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은주, 신동열)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노경남 대표는 "지역사회 착한가게 캠페인을 통해 기부에 동참하게 되어 작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임실군지부,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현장 점검

농협 임실군지부(지부장 이재문)는 지난 14일 임실군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방역활동에 힘쓰고 있는 최전선의 근무자들에게 격려품을 전달했다.

이재문 지부장은 "겨울철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행정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전홍영 기자

본사내방

▲백경태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가치 선도”

한국전기안전공사 제22대 허정환 상임감사 취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하영)는 지난 14일 제22대 상임감사에 허정환 전 국회 입법보좌관이 취임했다고 15일 밝혔다.

허 상임감사는 1966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국회의원 입법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허 상임감사는 14일 오후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최우선의 가치”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사를 만들기 위해 청렴 가치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상임감사는 이어 “정부정책과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인합으로써 공적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부안군산림조합, 관내 출생 아동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실시

부안군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산주·임업인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고 지역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부안군 출생아에게 출생축하금 지원사업을 이어 간다고 밝혔다.

부안군산림조합의 출생축하금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소중한 생명 탄생의 기쁨에 기쁨을 더하여 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출생축하금의 신청 방법은 출생 아동의 부 또는 모가 부안에 주소지를 둔 관내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 지참 후 부안군산림조합에 방문해 신청하면 출생 축하 우리 아이 생애 첫 통장을 개설해 주고 출생축하금으로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세준 부안군산림조합장은 “미래를 위해 나누를 심는 것처럼 아기 탄생을 축하 하기 위해 생애 첫 통장 개설과 출생축하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안군 관내 산주·임업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산림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환원 사업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성수면 가수마을 오영근 이사, 진안사랑 장학금 기탁

진안군 성수면 가수마을 오영근 이장은 15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오영근 이장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가수마을 이장으로 묵묵히 성수면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직접 농사지은 쌀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 2024년까지 18년 동안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100만원 상당의 쌀을 기탁하고 있다.

또한 진안사랑장학재단에도 22년, 23년에 이어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어 나눔 문화 확산의 귀감이 되고 있다.

오영근 이장은 “우리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춘성 이사장은 “오영근 이사장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다”며, “꾸준히 기탁해주시는 따뜻한 마음은 우리



지역 꿈나무들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노인회 무주군지회, 경로당 관리 참여자 교육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지회장 이광부)는 지난 13~15일 읍·면을 순회하며 2025년 경로당 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30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무주군지회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년에는 경로당관리사업 280명, 노인돌봄미사업 178명, 게이트볼강사파견사업 22명, 경로당회계도우미 11명 총 49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2025년에는 경로당관리사업 25명이 증가 총 516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지난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읍·면순회 하며 경로당관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월 3일에는 노인돌봄미사업, 게이트볼강사파견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고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대강면, 노인일자리 발대식·안전교육

남원시 대강면은 지난 1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30명을 대상으로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안내 및 작업구역을 설명했으며, 활동에서는 관내 쓰레기 줍기, 화단 정리,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통해 깨끗한 대강면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진행된 안전교육에서는 일자리 참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을 설명하고 예방법을 안내했다. 일자리 참여자는 “을 한해 건강 조심하면서 열심히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종표 면장은 “일자리 참여 기간 중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주상 원주소방서장, 현업부서 방문 소통·격려

이주상 원주소방서 신임 서장은 관내 현업부서를 순회하며 방문해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주상 서장은 이번 방문에서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을 책임지는 대원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현장의 위험 속에서도 한결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안전을 지키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의 헌신이 원주소방민들의 안전과 신뢰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팀의 운영 현황과 근무 환경 등 현업부서가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이번 현업부서 방문은 서장과 현업부서 간의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원주소방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대원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원주=염재복 기자



남원 향교동장, 취약계층 집중살림 방문

남원시 향교동 권혜정 동장은 지난 13일부터 관내 취약계층 집중살림을 위한 방문을 시작했다.

권 동장은 이번 방문에서 다가오는 명절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독거노인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나눔과 지원을 제공하며 소외되는 이웃이 없게 앞장서고 있다.

권혜정 동장은 “이번 집중 방문을 통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향교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희망 나눔 기부 릴레이 잇따라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차남)는 ‘기부로 나눔을 가지게, 기부로 남원을 가지게’라는 슬로건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되는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동충동 기부릴레이에는 15일 새마을지도자회(회장 안홍선)와 새마을부녀회(회장 한영희)는 만두 30박스를, 발전협의회(회장 김천수)는 5가정에 각각 10만원 상당의 남원사랑상품권으로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금동 브라더미싱 등, 이웃돕기 성금 기부

남원시는 희망2025나눔캠페인1 한창인 가운데 지난 14일, 매년 이웃돕기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과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남원불교사우연협회(회장 승묵스님)와 신도연합회에서 이웃돕기 성금 2백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동 브라더미싱의 황희형 대표가 지난 14일 백미 20kg 51포(환가액 2,295천 원 상당)를 금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 기탁된 백미 40포는 남원 노인복지관의 무료경로식당 사업에 사용되고, 나머지 11포는 금동 경로당에 전달되었으며, 이백면 발전협의회(위원장 안명엽)는 이백면행정복지센터에 이백면 24개 경로당에 전달해 달라며 쌀(12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남원=김기두 기자